

단편소설

밀봉된 마음

김수현

이 상하게 눈이 부셨다. 나는 양손으로 눈을 비비며 고전 두 권을 들춰보았다. 제목과 표지에서부터 어딘가 심상찮았다. 「구덩이」는 첫 문장부터 해고라는 단어가 튀어나왔고, 「안개」는 시작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래, 그럴 수 있다. 캄루아밀크를 천천히 마시며 책 장을 넘겼다. 씹씹한 밀크커피가 혀를 적신다. 만족스러운 혀와 달리 두 눈은 문장을 겹돌았다. 초점이 흔들려 문장 주변의 여백으로 자주 미끄러졌다.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듯 여백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누군가 그 안에서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눈을 감으면 들릴지도 몰랐다. 순간 감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눈에 힘을 바짝 주었다.

심바를 찾은 건 이곳에 책이 넘쳐났기 때문이다. 이층난 신축 아파트 상가라 그런지 카페 분위기도 남달랐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카페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의외로 조용한 편이었다. 모두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거나, 말없이 술을 마시고 책을 읽었다. 물론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를 모를 싱그러운 관목들이 사람들을 에워싸고 있었다. 관상용치고는 꽤 큰 편이어서 마치 정원 같기도 하고 숲 같기도 했다. 카페 입구부터 출까지 작고 네모난 화양목이 양쪽에 서있는 것도 독특했다. 그 사이를 지나야지만 책장에 닿을 수 있었다.

회색 장발을 느슨하게 묶은 사장은 분주했다. 사장은 전체망원경을 바로 옆 공원에 설치하고 관측과 촬영을 동시에 시작했다. 촬영된 영상은 카페 대화면으로 송출되었다. 홀 중앙 벽면에 설치된 대화면에는 덩그러니 보름달이 떠있었다. 송출된 화면은 꽤 선명해서 달 표면의 크레이터와 마리아가 뚜렷하게 보였다. 개기월식 이벤트였다. 개기식이 끝나는 새벽 세시까지 카페는 영업한다고 했다. 책을 집중할 수 없고 돌아갈 곳도 마땅찮은 나로서는 관측은 볼거리였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나는 진동이 멈출 때까지 검은색 가방을 지켜봤다. 전화는 연달아 세 번이 오고 난 뒤에야 멈췄다. 승우일 게 뻔했다. 매일 집에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승우는 전화를 자주했다. 병원을 다녀온 뒤로 내 상태를 일일이 확인하려들었다. 몸이 아닌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시켜주거란 불거했다. 나는 입술을 지그시 누르고 가방에서 책 한권을 꺼냈다. 책은 반년 동안이나 가방 속에 있었다.

충 필로티구조였고 엘리베이터는 없었다. 나는 3층 오른쪽 끝에 있는 제법 넓은 투룸에 살았다. 옆집 303호에는 남자 혼자 살았고 가끔 여자친구가 찾아왔다. 대체로 옆집은 늘 조용했다. 벽 너머로 들리는 소음을 통해 나는 옆집 남자를 떠올렸다. 떠올리고 싶지 않아도, 일단 소리가 들리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돌아가기 마련이다. 일을 마치고 온 남자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했다. 싱크대에서 물 내리는 소리와 설거지하는 소리도 들렸다. 다만 목소리만은 들리지 않았다. 사물이 움직이고 부딪히는 소리뿐이었다. 나는 옆집이 원룸이라는 것만 알았을 뿐 다른 건 전무했다.

여자친구가 찾아올 때면 옆집은 유난히 소리가 다양해졌다. 웃고 떠드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옆집 커피를 가벼운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그들은 계단을 올라왔다. 모습을 드러내기 전부터 웃음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와 복도로 퍼져나갔다. 둘 다 적당한 통통한 체형이라 건강해보였다. 저체중에 사십이 되어가는 내 눈에는 그들이 젊고 활기차게 보였다. 두 사람 손에는 흰색 비닐봉투가 들려있었다. 봉투는 꽤 묵직해보였는데, 아마 주말 동안 먹은 식재료였을 것이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짐작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편의점에서 살만한 것들은 주로 술이나 안주, 음료, 간편식, 컵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뭐 그런 것들.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는 윗집 소음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었다. 거구의 게임 유튜버인 윗집 남자가 걸을 때마다 천장이 울렸다. 그날 사건이 벌어지던 밤에도 아이টে에 광분하며 내지르던 유튜버의 소리가 들렸다. 그날 옆집 커피를 평소처럼 먹고 마실 것들을 왕창 샀을 것이다. 그날은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으니 그 양은 두 배였을 것이고, 성인 세 명이 원룸에 앉아 술을 마시기에는 협소할 게 분명했다.

자정을 넘겨 한 시가 되었을 무렵이었다. 간간히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자의 낮은 톤은 옆집 남자의 술주정에 묻혔다. 옆집 남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지껄어댔다. 부실한 벽을 통해 모든 소리가 흘러들었다. 인이어를 꺼도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잠재우지 못했다. 술병이 구르는 소리가 나기까지 그들은 그저 술을 마시는 젊은이들에 불과했다. 나는 모로 누운 채 잔잔한 연주곡을 들었다. 인이어가 귀에 눌러 붙어있었다. 양쪽 귀에서 인이어를



그림=임근재 작가
▲조선대 미대 회화과 및 동 대학원 졸업 ▲대한민국미술대전 수상작가 초대전 ▲400여회 기획전 참여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 ▲전남도전 심사 ▲광주시전 운영 및 심사

뜨라고 외쳐댔기 때문이다. 나는 음악을 꺼냈다. 음악마저 비통해 들을 수 없었다. 새벽 두시였다. 3층 거실 창문으로 내다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야근중인 승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받지 않았다. 받았다면, 처음부터, 한달음에 달려왔다면, 다른 결말을 맞았을지도 모른다.

어느 겨울밤, 윗집에서 자정이 넘도록 시끄러웠다. 윗집 거구와 남자 여럿이 게임 방송을 하는 모양이었다. 소리는 고스란히 아래로 전해졌다. 잠을 뒤적이던 승우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내복 차림으로 밖으로 나갔다. 너무 재빨라서 나는 미처 잡지 못했다. 승우는 같은 게이머로서 지금까지 윗집 소음을 참았었다. 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승우가 계단을 올라가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잠시 뒤 문이 열렸다. 나는 어렵지 않게 승우의 모습을 그릴 수 있었다. 승우는 험악한 얼굴로 거구에게 말할 것이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시끄럽게 하냐고. 덩치는 윗집 남자보다 작아도 승우는 어깨가 딱 벌어졌고 얼굴도 거칠었다. 거친 얼굴만큼이나 거침없었다. 나는 그와중에 회색 내복을 입고 있는 그를 떠올렸다. 얼마 뒤 승우가 계단을 내려왔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이불속으로 들어가 잠들었다. 이후부터 밤늦게 윗집에서 소란을 피우면 승우는 경찰에 신고했다.

또 어느 날이던가. 안방에서 창밖을 보던 승우가 갑자기 휴대폰으로 어딘가로 전화했다. “네, 옆집에 사다리가 놓여 있는데요. 전에는 없었는데요.” 나는 무슨 일이냐며 창가로 갔었다. 정말 옆집 벽을 따라 2층까지 기다란 철사다리가 놓여 있었다. “도둑이 든 건 아닌 것 같은데,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와보면 알겠지.” 승우는 그랬다. 자신의 갑대로 움직였다. 얼마 뒤 경찰에게 전화가 왔다. 승우는 네, 알겠습니다, 하며 전화를 끊었다. 2층에 놓인 사다리는 내가 짐작한대로였다. 세를 놓기 위해 공사 중이라고 했다. 나는 그런 승우가 과하다 싶으면서도 그럴만할지도 모른다고 여겼다. 누군가가 위험에 처한다면 그 손길은 절박할 테니까.

승우였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여자가 계단을 오르기 전에, 옆집 현관문을 두드렸을 것이다. 내복차림이 아닌 회색 추리닝 차림으로. 적어도 나처럼 비겁하게 굴진 않았을 것이다.

나 는 왼손으로 화양목 가지를 살짝 건드렸다. 손뼉만한 연둣빛 잎사귀들이 가지 끝에 촘촘히 붙어 있다. 실바는 라틴어로 ‘숲’이었다. 숲을 구성하는 관목들이 사람들을 에워쌌다. 나는 숲 속에 떠 있는 달을 응시했다. 지구 그림자에 보름달이 조금씩 가려졌다. 크레이터는 운석이나 소행성 충돌로 생긴 원형 분화구였다. 나는 깊고 어두운 마리아를 한동안 응시했다. 내부에서 붉은 용암이 분출되어 굳어진 흔적, 라틴어로 ‘바다’라고 불렀다. 안팎으로 생긴 상처가 서서히 깎여나갔다. 회색머리 사장은 테이블오더 화면에 개기월식에 참고할만한 것들을 몇 가지 띄워두었다.

맞은편 구석자리에 앉은 남자는 왼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수시로 확인했다. 그러다 한 번씩 창밖을 바라봤다. 책 한 권과 붉은 와인잔이 남자 앞에

휴대폰을 보니 새벽 세시가 넘었다.

킧가에는 짐승소리가 여전했다.

안방에서 나와 불이 켜진 거실을 서성이며 창문을 노려봤다.

어떻게든 머리를 내밀어 창밖을 확인하고 싶었다.

놓여 있었다. 벌써 몇 잔이나 마신 듯 그의 몸은 의자에 축 늘어져 있었다. 책은 장식품에 불과하듯 손도 대지 않았다. 나는 붉은 와인잔을 물끄러미 보다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잠시 뒤 알바생이 원목 갈색 트레이에 레드와인 한 잔을 들고 왔다. 맞은편 테이블의 와인잔은 금세 비어 있었다. 알바생은 맞은편 테이블에 레드와인을 놓고 빈 잔을 가져갔다. 나는 빗빛을 띠는 와인잔을 보다 눈을 짙은 감았다.

다시 전화가 울려대기 시작했다.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부재중 전화 5통. 지금부터 승우는 안달이 날 것이다. 나는 그의 숨이 헐떡거릴 때까지 전화를 받지 않을 셈이다. 테이블오더로 카테일 한 잔을 더 시켰다. 어딘가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마 상가 학원일 것이다. 실바에는 어떤 음악도 흐르지 않았다. 음악이 사라진 공간에서 모든 소리는 여과되지 못한 채 파동을 일으켰다.

나는 잠시 피아노 소리를 들었다. 친숙한 멜로디였다. 어릴 적 자주 흥얼거려곤 했던 동요였다. 그러다 문득 가짜 달이 아닌 진짜 달이 보고 싶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각테이블이 앞으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앞 테이블 와인남과 눈이 마주쳤다. 남자의 눈은 별장계 충혈되어 있었다. 며칠째 잠을 못 잔 걸까, 실연을 당했나, 아니면 부모를 여윈 걸까. 별별 생각이 스쳤다. 나는 화양목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다 잠시 멈췄다. 화장실로 갔던 여자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찬바람이 정면으로 불어왔다. 나는 코트를 걸치지 않은 탓에 바들바들 떨었다. 코끝이 간질거리더니 기침이 터져 나왔고 콧물마저 흘러내렸다. 고개를 들고 보름달을 쫓았다. 어둠속에서 달은 한쪽이 구부러진 채 원형을 잃어가고 있었다. 얼마 뒤 서서히 밀려오는 두터운 구름에 달은 자취를 감췄다. 나는 구름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이 금세 얼어붙었다.

승우의 손은 따뜻하다. 그의 팔뚝은 단단하고 위팔 안쪽은 부드럽고 말랑했다. 그가 내 가슴을 조물거리듯, 나는 그의 손을 잡거나 겨드랑이 손을 넣어 위팔 안쪽을 왼손으로 매만졌다. 반복적으로 만지면 피부가 벗겨질 것 같았지만 계속 만졌다. 승우는 한 번도 운전하는데 방해된다고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서 계속 만졌고 다른 흥밋거리가 생기면 금세 손을 뗐다. 한 번씩 싸울 때면 나는 팔을 잡을 수 없어서 미칠 것만 같았다. 언젠가 잠결에 어둠속에서 승우가 물었다. 너는 내 팔만 있으면 되냐고. 그 말을 듣자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그럼 너는

내 가슴만 있으면 되겠네, 하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팔과 가슴만 등등 떠다니는 건 굉장히 이상한 나니까. 정말 묻고 싶은 건 이런 게 아니었을까. 팔만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 팔이어도 되는 거냐고. 나는 맞박아줬을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 젓가슴이어도 되는 거냐고.

여 자가 뛰어내린 원룸건물은 둔중한 침묵에 휩싸였다. 나는 앰블런스가 와서 여자를 실어갔을 거라고 짐작했다. 휴대폰을 보니 새벽 세시가 넘었다. 킧가에는 짐승소리가 여전했다. 안방에서 나와 불이 켜진 거실을 서성이며 창문을 노려봤다. 어떻게든 머리를 내밀어 창밖을 확인하고 싶었다. 뭐라도 보고 싶어서 거실 대신 세탁실이 있는 우측 베란다로 걸어들었다. 좁은 베란다 창가에 서서 얼굴을 쑥 내밀었다. 어둠속에서 두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그들은 오른쪽 끝에서 천천히 걸어왔다. 가로등 불빛에 두 사람이 드러난 순간 나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옆집 남자와 다른 한 남자였다. 그 순간 거실전등 불빛이 세탁실까지 비친다는 것을 알았다. 부들거리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옆집에 불이 켜진 걸 봤을 것이다. 누가 사는지도 알고 있을 테고. 평소 승우와 내가 일으켰던 소란도 벽을 통해 남자에게 전해졌을 것이다. 어쩌면 남자는 옆집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새벽 세시에 불이 켜져 있는 집이 뭣이나 될 것인가. 다시 숨이 거칠어졌다. 승우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두 남자가 걸어오던 길가에는 낡은 건물 한 채가 있었다. 흰색 타일이 조잡하게 붙여진 작은 단층 건물. 그러나 결코 무시할 수만은 없는 건물이었다. 출입문 위 간판에 KCSI라고 쓰여 있는 곳. 나는 늘 궁금했었다. 왜 이런 골목에 과학수사대가 있는지. KCSI 로고 박힌 스테릭스 차량이 좁은 도로를 오가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아무래도 두 남자는 그곳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오는 길인 듯했다. 인근 병원에서 오는 길일수도 있고.

누군가의 진술이 필요했다면, 그건 승우가 아니어야 했다. 하지만 경찰은 승우에게 연락했다. 경찰은 1층에 주차된 말리부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에 대해 물었다. 승우는 묻는 말에 태연하게 답했다. 지켜보는 나는 그러지 못했다. 전날 밤, 승우의 차량은 공장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 승우는 야근을 마치고 새벽 여섯 시쯤 원룸에 도착했다. 사건이 벌어지진 내 시간이 지난 후였다.

술자리에서 싸움은 비밀비재하다고 되뇌었다.

곧 지나갈 바람이라고.

그러나 폐부 깊숙한 곳에 서늘한 바람이 지나갔다.

오래전에 밀봉시킨 기억이 바람에 꿈틀거렸다.

「말테의 수기」는 첫 문장부터 죽음을 말한다. 시인 릴케가 남긴 유일한 장편소설이다. 말테는 릴케 자신의 본신인 셈이다. 젊은 시인은 가난하지 않은 척 애쓰지만, 그가 가난하다는 것을 세상은 알고 있다. 낡은 펠트모자와 오버코트와 가죽구두는 누가 봐도 낡고 해졌으니까. 시인은 뭐라도 써보겠다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집을 나선다. 파리 곳곳에 떠도는 냄새를 감지하면서 거리를 누빈다. 병자와 빈곤한 노동자들이 내뿜는 냄새를 피하지 않고 마주한다. 지독한 냄새가 제 몸에서도 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시인은 좌절한다.

갑자기 킧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다. 뒤쪽 룸에서 여자가 나왔다. 긴 머리에 낫빛이 다소 창백한 여자였다. 여자는 베이지색 플레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낫이 창백한 건 조명 때문이었다. 여자는 취기가 도는지 불이 밝그래했고 열기를 한껏 품고 있었다. 여자가 나를 힐끔 보더니 대뜸 웃었다. 그러곤 테이블 위에 놓인 플라토노프, 우나무노, 릴케의 책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여자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놓치지 않았다. 꿩꿩어보는 듯한 시선이 다소 불쾌했다. 그녀의 목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다. 작고 균일한 흑갈색 구슬들이 줄줄이 쫓여 있었다. 목결이 끝에 달린 장식은 본 순간, 나도 모르게 입술이 벌어졌다. 십자가가 달린 목주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살폈다. 왼손 검지에도 특정한 문양이 박힌 반지가 보였다. 역시 십자가였다. 여자는 화양목 사이를 지나 화장실 쪽으로 갔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원피스가 살랑거렸다. 나는 끝까지 지켜봤다. 여자가 사라졌는데도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여 떤 죽음에 대해 말하려 한다. 말테가 목격한 술한 죽음에 되살아났던, 어느 밤의 이야기다. 그래, 벌써 반년이 지났다.

나는 그 커피와 원룸건물 입구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몇 번 마주쳤었다. 전에 살던 원룸건물은 5

배고 블루투스를 켜다. 음악은 그대로 켜두었다. 그때 갑자기 옆집 남자가 소리쳤다.

“씨발, 좀 닥치고!”

그 한마디가 내 귀를 관통했다. 이어 술병이 넘어져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들렸고, 무언가가 충돌하는 묵직한 소음이 울렸다. 옆집 남자가 벌떡 일어나 누군가를 가격한 듯했다. 일어날 것도 없이 몸을 기울여 순간 뺨에도 닿았을 것이다. 그곳은 협소하니까.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재빨리 복도로 뛰쳐나갔다. 곧이어 방 안에 있던 두 사람도 뒤따라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나는 당연히 그들이 내려갔다고 생각했다. 급격한 추위에 얼어붙은 듯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살짝 열려 있던 안방 문틈으로 거실 전등 불빛이 스며들었다. 마치 호흡관에 연결된 숨 줄기 같아서 나는 눈을 떼지 못했다. 술자리에서 싸움은 비밀비재하다고 되뇌었다. 곧 지나갈 바람이라고. 그러나 폐부 깊숙한 곳에 서늘한 바람이 지나갔다. 오래전에 밀봉시킨 기억이 바람에 꿈틀거렸다.

잠시 뒤 건물 위쪽에서 계단을 뛰어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조금 전 내려간 줄만 알았던 그들은 위로 올라갔던 거였다. 옆집 남자가 소리쳤다.

“어떡해, 어떡해, 은수야! 은수야!”

파랗게 질린 목소리가 건물을 뒤흔었다. 좁은 복도와 좁은 문과 좁은 계단을 타고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옆집 남자는 은수를 애타게 불렀다. 귀를 찌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내 몸을 옥죄었다. 현관에 이 중문이 있었지만 소용없었다. 이 건물은 5층까지 있었고, 아마 전 세대가 남자의 절규를 들었을 것이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이টে에 톤질하며 제발, 제발거리러 윗집 유튜버도. 그리 떠들던 유튜버도 잠잠했다. 어디에서도 문이 열리거나 사람의 기척은 들리지 않았다. 건물 밖에서 짐승이 울부짖었을 뿐이다.

“은수야, 눈 좀 떠봐, 은수야!”
은수는 눈을 뜨지 못했다. 남자가 미친 듯이 눈을